오페라 태동부터 현재까지 변천사 담았다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오페라 파노라마' 주제
1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과거 오페라는 귀족음악의 하나였다. 현재 대중들에게 사랑받기까지 오페라는 변화했다. 오페라는 언어와 시각, 음악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감동은 배가 된다. 오페라의 태동부터 현재의 이르기까지 시대별 변천사를 담은 공연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은 1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오페라 파노라마'라는 주제로 여덟 번째 월요콘서트를 개최한다. 그리스어로 '파노라마(panhoran)'는 모두가 보인다 보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은 바로크 시대부터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해 온 오페라의 역사를 영상과 감각적인 해설을 통해 쉽고 친근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시대별 다양한 주제의 오페라 아리아 중창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주옥같은 고품격 연주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장대함과 활기를 표현한 바로크 시대의 거장 헨델의 유명한 아리아와 고전 시대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 중창, 감정적이고 서정적인 선율이 사랑·행복·비극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담아 관객들에게 큰 만족감과 깊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단체인 '프리모 클래식'은 유학파 음악인(성악가)들로 구성돼 다양한 시도와 기획으로 갈라 콘서트, 국공립 기관 및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단순한 형식의 음악회가 아닌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 공연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소프라노 신은선·김수민·윤한나, 메조소프라노 신은정, 테너 윤승환, 바리톤 김경천, 피아노 지해나·이지은씨가 무대에 서며 해설은 김미옥 예술감독이 맡는다.

프리모클래식 단원들.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 2022 월요콘서트는 공연 종료 후 관람객이 내고 싶은 만큼의 관람료를 내는 '감동후불제'를 도입, 관람객의 자유로운 만족도 표현과 공연가치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월요콘서트는 선착순 100명이며, 공연장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관람 신청은 사전 전화예약(빛고을시민문화관 062-670-7926)을 통해 받는다.

한편,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콘서트는 25일 '크로스포맨' 공연단체의 '바로크로스포맨의 이야기'가 연다. /이나라 기자

이번주 개봉영화

◇더 킬러:죽어도 되는 아이=평화를 위해 다시 시작된 킬러 본능. 은퇴 후 성공적인 재테크로 호화롭게 생활하는 전설의 킬러 의강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여고생 윤지를 떠맡게 된다. 단기간 보호자 역할만 하면 될 거라고 가볍게 여긴 순간 윤지가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걔는 다치면 안 되는 아이야…" 애써 잠재운 의강의 본능이 깨어난다. 최재훈 감독, 장혁 주연. 95분. 13일 개봉.

◇뒤틀린 집=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딴집에 이사 오게 된 가족. 엄마 명혜는 이사 온 첫날부터 이 집이 뒤틀렸다고 전하는 이웃집 여자의 경고와 창고에서 들리는 불길한 소리로 인해 밤잠을 설친다. 아빠 현민은 그런 명혜를 신경쇠약으로만 여기고, 둘째 딸 희우는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마주하지만 그 사실을 숨긴다. 강동헌 감독, 서영희·김민재·김보민 주연. 91분. 13일 개봉.

◇엘비스=미국남부 멤피스에서 음악의 꿈을 키우던 19살의 무명 가수 엘비스는 지역 라디오의 작은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뜨거운 환호성을 받는다.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일하던 톰 파커는 이를 목격하고 엘비스에게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바즈 루어만 감독, 오스틴 버틀러 톰 행크스 주연. 159분. 13일 개봉.

◇로스트 도터=그리스로 혼자 휴가를 떠난 대학 교수 레다는 딸을 가진 젊은 여자 니나를 보고 단번에 시선을 빼앗긴다. 매일 같은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응시하던 두 사람, 갑자기 니나의 딸이 사라지고 레다는 옛 기억을 떠올린다. 매기 질렌할 감독, 올리비아 콜맨·다코타 존슨·제시 버클리·폴 메스칼 주연. 122분. 14일 개봉.

장애인 근로자들 위한 '힐링 콘서트'

내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팝페라 그룹 쇼인어스 오프닝

장애인 근로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마련됐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15일 오후 3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장애인 근로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행복한 동행 그대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호남지역 장애인근로자 및 가족들과 장애인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들의 여가문화 제한을 극복하고, 이들의 자아실현 및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닝 무대는 젊은 팝페라 그룹 쇼인어스가 선사한다. 조수미의 '챔피언스'(Champions), 영화 '가을의 전설' OST '집으로 가는 길'을 비롯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달의 몰락' 등 6곡을 선보인다.

두 번째 무대는 장애인공연단체 이음밴드가 꾸민다. '혼자가 아닌 나', '홀로된 사랑', '멋진 주말', '여름' 등 4곡을 통기타, 키보드가 함께하는 밴드음악으로 들려준다.

그룹 쇼인어스

이어 퓨전국악밴드 비단이 스탠드마이크를 활용해 흥겨운 무대를 연출하며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3집 타이틀곡 '영웅담'과 대중가요 '붉은 노을'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준비했다.

이밖에도 장애인공연팀인 푸른하늘예술단의 난타공연, 댄스팀 이카루스, 트로트가수 숙행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은 서화진 MC의 사회로 진행되며 사진 촬영 및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정찬훈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힐링콘서트 음악을 통해 호남지역 장애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음악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들이 문화사업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콘서트 참가 희망자는 14일까지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나라 기자

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신진예술인에 창작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총 60억 원 규모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생애 1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공고일인 7월 13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한 국내 거주 내국인 중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하며 장애예술인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이나 상담창구(02-3668-02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